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내면 믿고 관하는건 진리의 길

☞ 15면에서 계속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이, 불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불성은 있으니 불교라고 했죠. 그렇듯이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게 그냥 불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에 내가 공했다는 걸 알고, 내 전체 몸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공해서 한 개체가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한 개체가 사는 '나'가 없다면 상대가 전부 없어요. 나만 없다면. 그래서 나의 나무는 나의 뿌리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줄타기에서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을 잡게 하지 않고 잡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 이름만 부르든가 뭐 이런 걸 믿어라, 이렇게만 자꾸 나간다면 자기는 그 위의, 언덕 위의 맛을 못보고 항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심부름꾼 노릇밖에 할 수 없겠죠. 자기 부처를 자기가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헤매면서 말입니다.

> 다가오는 경계를
> 이게 옳다 저게 옳다
> 미리 판단말고
> 내안 근본자리에
> 믿음으로 되돌려
> 놓는다면
> 일체에 걸림없고
> 주장자 세우는 일

내가 공해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 내 몸속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부처란 얘기죠.

내 몸뚱이가 살아서도 체가 없는데, 내 것이 없는데, 세울 게 없는데, 또 본래 있는 걸 찾을 게 없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나간다면 내가 이 생활을 떠나서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뭘 찾아야겠다 뭘 구해야겠다 하는 자체가 아주 한계가 많은 자기의 생각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만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수행하는 마음가짐으로, 학교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내게 닥쳐있는 이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을 믿고 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거든 또 질문하도록 하고,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래요.

결단을 내릴 때의 마음자세

문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사회 초년생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으로 희미하게나마 마음공부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고 힘차게 한 발 내딛기에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요즈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스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단언하면 모든 것, 나를 포함한 일체를 몰록 놓아 버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질문이 나오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놓아도 놓아도 다시 나타나는 나를 보면 아직도 공부가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에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스님께서는 내외에서 다가오는 일체 경계를 놓아버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부가 무르익지 않은 저에게 있어서 경계를 놓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결단의 순간 즉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주위의 상황이 저를 계속 어떤 빠져나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주인공의 가르침의 방편이라 생각하고 상황에 순응하고 닥쳐오는 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주인공에게 일임해야 할까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기에, 아직 공부가 미흡한 저로서는 갈피를 잡기가 힘듭니다. 큰스님의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했지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나로 인해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벌어지니 나를 다스리면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내면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용광로에다 헌쇠 넣듯, 모든 것을 거기서 하게끔 감사하는 마음으로 놓아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거기요, 일체 만법 역시 거기서 들고 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내게 닥쳤다면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 또 놓으세요. 그래야 다가오는 경계에 끄달려서 입력된 의식에 맹종해서 갈피를 못잡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모든 이치를 바로 알아서 올바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미리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내 안의 근본자리에 의지해서 일체를 믿고 맡겨놓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해야할 일을 걸림없이 해나가면서 그대로 자기가 주장자를 올바로 세우고 나가는 공부를 하게 되겠지요.

바르게 돌려놓는 방법

문 스님! 생각을 돌려놓을 때에 꼭 생각을 다시 일으켜서 놓아야만 합니까?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생각을 일으키는 게 번거롭게 생각됩니다.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따로이 생각을 내고 싶지 않고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면 일부러 머리에 일이 잘 되어진 이미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답 어느 회사에 직원들이 수천 수만이 있다 해도 사장님 한 생각에 직원들이 다 움직이게 되고 사장님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뤄서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모두가 따르는 것처럼, 내가 한 번 과감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거기에 믿고 놓아야만이 결정적인 결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재를 해서 내려야 모두 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 하나를 우주간 법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기권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걸 조절해서 좋은 거는 들이고 나쁜 거는 내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뚱이도 이 지구의 대기권과 같이 세포 하나 하나에서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다 조절합니다.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한 번 내리면 결재가 된 거와 같아서 두뇌로 통신이 되고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모자라는 걸 안에서 채워서 하고, 또 바깥의 일이 위태롭게 될 때는 바로 세포의 법계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마음 속으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 즉 일체 만법은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리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결정을 너리지 못하면서 된다 안된다는 생각에 끄달리면 안됩니다.

한 생각 일으키는 게 바로 회사에서 상사에게 결재 서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결재 서류를 맡겼다가 다시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하는 데도 될 수 있으면 주인공에 맡겨 놓고 도로 쥐고 나오지 마세요. 맡겼는데도 그걸 또 들추어내어 사량으로 걱정을 하는 건 맡겼던 서류를 도로 들고 나오는 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사람 안되고 전부 들고 나와요. 도로. 그리고는 안되느니 되느니 하고 야단이죠. 왜 맡겼는데도 안되느냐 이겁니다. 잘 맡겼으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못 맡겼으니깐 그렇죠.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생활이 마음공부 할 수 있는 재료 · 맡겼으면 도로 쥐고 나오지 말아야

특별히 놓고 맡길게 없어

문 저는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주인공에게 놓고 맡길 일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 큰 병에 걸렸거나 큰 고난을 만났다면 좋은 공부 재료가 될지도 모르나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놓고 맡겨야 할까요? 꼭 어떤 큰일이 닥쳐야 공부가 되는 건지 그냥 별일 없는 사람은 무엇을 맡겨서 결과를 보는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 좀 잘되고 나 좀 편하자는데 내심으로 뜻을 두고 놓고 맡긴다면 이기심을 부린다는 불교의 의미와 좀 다른데 어떤지요?

답 그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세심하게 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을 등한시한 채 크고 감동적인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크고 작은 것도 없는 것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자기가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 하나 해나가면서 근본을 믿는 힘을 길러갈 수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근본과 감응이 되기도 하고, 상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는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히 지나쳐 버리기 쉬운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지켜볼 수 있으려면 지극하게 자신의 근본을 믿고 관해야 합니다. 마치 흙탕물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듯이, 바깥으로 끄달리는 마음을 근본으로 향하고 자신이 이 마음공부를 꼭 해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만이 물 속을 훤히 비쳐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이 기복이 아닌가 물으셨는데,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처의 길이자 진리의 길입니다. 내면을 믿고 관하고 믿는 것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 자리를 발현하기 위한 수행의 길이니까요. 그 길은 나와 너가 없어진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한 생각을 내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체를 살리고 일체를 진화시키는 믿음의 한생각이니까요. 그러니 지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근본을 지켜보십시오. 그 길에서부터 이 마음공부는 시작되고 또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준 부적 지녀야 하는지…

문 평소 큰스님 말씀을 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젊은이입니다. 기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큰스님 말씀을 접한 이후로 기복이나 타력에 대해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저의 어머님이 절에서 빌었다면서 부적을 몸에 지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 자신은 물론 부적이니 하는 것들을 믿지도 않고 그런 행운을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에라도 의지하신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지니지 않게 되면 어머님의 정성을 너무 쉽게 미신이다 기복이다 치부하면서 무시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머님과 떨어져 사는 까닭에 어머님께 큰스님의 마음법을 이야기 드릴 기회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 부모가 아무리 옳지않다 하더라도 자식을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조금 싫다고 해서 "지금 세상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아버지, 이제는 세대가 다르니 그 구태의연한 말씀 좀 고만하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이러면서 짜증이나 내면 안됩니다. 융통성 있고 지혜롭다면 "예, 아버지""예, 어머니. 어머니가 잘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깊이깊이 새기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설사 그렇게 안할지언정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잘된 줄 알고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늘 생활이 교재라고 말하죠. 부모님이 이런 마음공부를 모른다고해서 뭐, 이런 걸 아실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 공부하고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그런 걸 아시든 모르시든 마음으로는 계속 '주인공, 둘이 아닌 마음이니 당신만이 부모님의 마음도 둘 아니게 밝아지게 할 수 있잖아' 하고 통신을 보내면 본인의 기분도 좋을 뿐 아니라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밝아지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서로 한마음이 된다면 그까짓 것,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할 때, 그건 말을 해서도 아니되는 거고 때려서도 아니되는 거고 욕을 해서도 아니되는 거니까, 마음과 마음을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야만이 그냥 저절로, 몸뚱인 저절로 끌려온다는 얘기죠. 그러고 그러한 짓을 안하게 되는 것도 관하니까, 그 아이의 마음 컴퓨터에 관하면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 들어가면은 바로 그 앞서의 입력됐던 게 없어짐으로써 그 애의 마음은 밝게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 이런 요령을 다 잘 알아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부드러운 말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 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아마 그런 부적이나 사주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가정에도 화목이 오고 좋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고 응해드리면서 부모님이 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일체유심조'의 의미

문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뜻풀이를 현대 상황과 연결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벌써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갖은 모습이 다 돼 보고 사람이 된 건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고해 속에서 벗어날는지 어떤지 그것을 몰라서야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어떻게 자유인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도리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한생각 내는건 일체를 살리고 진화시키는 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근본 지켜보는게 마음공부 시작과 끝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살아나가다 모습을 바꿀 때에 실오라기 하나 걸칠 게 없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재물이나 보물은 방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대문 안에서 인사를 할 것이고, 친척, 부부지간,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동구밖에서 인사를 할 뿐이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만이 그림자처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업식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고초는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 마시고 꼭 알아야 하고 진실로써 조그맣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때에 진실한 실천궁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법이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바로 굴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굴려놓는다고 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착을 가지고 다시 쥐고 놓질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가정에 어떠한 애고가 닥쳐도 타파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놓고 가는 도리입니다. 지혜롭게 바로 돌려놓는 그 자체 말입니다. 돌려놓는다, 돌려놓는다 하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닥쳐오는 경계는 체가 없는 데서부터 체가 있는 데로 나옵니다. 일이 꼬여 들어가도 마음으로부터 일이 벌어져서 바깥으로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마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꼬여진 거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상대가 되고, 벌어지고, 엉켜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밖에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단지 이러한 마음의 도리를 머리로 이해하려 해서는 허탕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일체가 벌어지고, 일체가 마음으로 인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행을 해 보아야만이 알 수가 있고, 체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체는 오직 주인공안에서 들고 난다는 것을 알고, 일상 생활 속에서 내 근본의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일체를 그 근본에 맡겨 놓으며, 내 무심의 한생각이 일체와 둘 아니게 연결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